

선교사 모임 Missionary Group

그리스도를 본 받아

2021 06 04

문을 닫진 것입니다. 그들이 닫진 절문은 단순한 표기상에서 우
려난 절문이 아니었습니다. 확실하고도 완벽한 절문이었습니
다. 만일 절문을 닫지 않았다면, 그냥 문고 한 귀로 흘러 버렸
다면, 아니면 베드로의 앞에 곧장 반박했더라면, 그들은 새로운
삶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들은 물었습니다. "절
제들이, 우리가 어찌할꼬?"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.

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례를 받고 죄 사함을
받으라,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
희 자녀와 모든 믿는 자를 본 우 우리 하나님께 알리니 주르시
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. 행 1:30-31

베드로의 권유를 보십시오. 그는 먼저 회개를 말했습니다. 회개
는 그리스도어로 '메타노이아'라고 합니다. 생각을 바꾼다
는 말입니다. 좀 더 확장하면 생각하는 방식, 삶의 가치, 삶의 방
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회개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마
르틴 삶의 길, 삶의 방식, 삶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삶
의 방식을 가져라는 말입니다. 그런데 보십시오, 예수께서 처음
시역을 시작했을 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?

책 읽기 모임 참여 신청후 월요일 새벽 3시 반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잠시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내가 만약 몸이 아파 응급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새벽이든 한 밤중이든 나는 기꺼이 어느 시간이든지 수술 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. 책을 읽는 동안 저의 영혼이 수술되어지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. 귀한 책 한 권이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는 시간 이어서 감사합니다. (이경희 -탄자니아)

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책도 나눔도 교제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(정준형 -터키)

대학시절 이 책을 처음 접했지만 읽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어 전체를 일게 되었네요. 고전이지만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특히 함께 읽는 분들의 관점을 나누면서 인생과 영성을 더 깊은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(김상홍 - 말레이시아)

의도적으로 외로움을 선택하라!

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!!

저는 요즘도 이 말을 되새깁니다.

마지막까지 참석 못해서 아쉬웠지만

고전을 읽으며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

저에게 참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 드려요. (안화연 - 태국)

그리스도를 본받아 내용가운데 "제 마음이 주님과 합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"라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.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39편 7절의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.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? 저희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.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열매맺는 일에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주님과 합하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함을 새롭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. 결과가 아니라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합하여져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 분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. (정지문 - 일본)

분주한 사역 가운데 복잡함을 내려놓고 수도원에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비추는 시간이었습니다.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기에 갈급함으로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(김수련)